

# 新성장동력으로서의 ESCO를 기대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8·15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국가 비전으로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의 상생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이는 작년에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총회에서 발표한 ESCO 혁신 방안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절약시장으로 대표되면서 점점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는 ESCO 혁신방안과 ESCO의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본다. 글 김진오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ESCO시장의 새로운 활력소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부 실천계획으로 지난 9월 11일 지식경제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제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이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혁신적 에너지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화석연료 청정화,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로 나뉘어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에너지절약시장으로 대표되는 ESCO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원래 ESCO는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에너지 절약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ESCO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점점 커지고 있긴 하지만 최근 신고유가, 기후변화협약, 에너지진단의무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로 인해 민간자금 활용에 소극적이고, 기술 인력도 미흡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ESCO시장에 새로운 활력소를 넣어 줄 필요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2007년) 8월 30일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총회에서 11개 업종의 지식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정·육성하겠다고 공표했고, 이어 9월 5일에는 11개 업종별 세부 육성방안 중 첫 번째로 ESCO 혁신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 ESCO 혁신방안의 수립 배경

ESCO 혁신방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우선 범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협약에 우리나라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입증된 ESCO사업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지식서비스 산업인 ESCO 육성은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ESCO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절약에서 그치지 않고 LOHAS(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를 추구하는 신 환경제품과 접목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현재 ESCO시장이 Red Ocean, 즉 시장 참가자들이 제한된 에너지절약 포화시장을 놓고 목을 조이는 출혈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Blue Ocean, 즉 경쟁기업이 없는 무경쟁 시장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대승전략을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Green Ocean, 즉 친환경, 웰빙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교토의정서, 환경규제강화, 주주와 금융기관의 투명성까지 요구되면서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분야의 신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 Green Ocean과 Blue Ocean으로서의 접근이 필요

이에 따라 ESCO 혁신방안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Green Ocean으로서의 ESCO산업과 신 환경산업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Blue Ocean으로서 지식서비스산업과의 관계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기후 변화로 인해 달라질 향후 ESCO 사업 분야의 거시적인 변화 전망을 분석하고

산업별 전반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시장의 등장 등 산업별 Green Ocean 시장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기존 시장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외국 기업과 우리 기업의 사업현황, 투자전략 등을 비교분석하여 선도 기업과의 간극(gap) 및 비교우위를 도출해야 한다.

선진국 정부나 기업의 경우 기후 변화와 관련된 신 환경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기술개발 규범형성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CO<sub>2</sub>저감에 맞추어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중이며, 마케팅 전략에도 환경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기술, 인력, 초기투자 등 Green Ocean 창출을 위한 정부의 ESCO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후자는 ESCO사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취급하기 위해서이다.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업종을 말한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지식서비스투자를 1% 늘리면 부가가치가 평균 2.6%~4.2% 상승하고, 취업유발 계수가 제조업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식서비스 산업업종으로 11개 분야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ESCO를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ESCO는 LOHAS적인 Green Ocean에 속하는 친환경 산업이면서도 Blue Ocean에 속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등장된 것이다.

### 지식경제부의 ESCO 혁신전략

그렇다면 지식경제부의 전신인 산업자원부에서는 ESCO의 혁신전략으로 어떤 것들을 제시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자금조달 활성화를 통해 ESCO시장을 확대하려고 한다. ESCO업체가 발굴한 CDM사업이 가능하고 투자수익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탄소펀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ESCO시장의 단기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정책자금을 증액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정책자금의 원천적인 부족현상을 감안하여 대기업보다는 민간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자금을 지원토록 한다는 방침도 함께 세워놓고 있다.

둘째, ESCO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그에 걸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한다. 에너지 분야 인력양성센터를 활용, 대학에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ESCO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력과 경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ESCO 인증과 정책자금 추가지원 등 우수 ESCO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있으며, ESCO가 기술 중심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ESCO 등록기준도 기술 중심으로의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공공부문 ESCO사업을 활성화하고, 해외 ESCO시장 진출도 도모하려고 한다. 국립대학 및 군부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CO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ESCO의 에너지 절약성과를 홍보하며 공공기관 에너지융합리화 추진지침을 개정하여 ESCO사업 추진시 기관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중국 제남시와 ESCO사업 상호협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3차 아시아 ESCO 컨퍼런스 국내 개최 유치에도 노력함으로써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ESCO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ASEAN 등 동남아 국가 CDM사업 확대에 적극 협력하고 동 국가 온실가스 감축시장에 우리 ESCO업체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CDM시장 진출이 미약한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CDM사업 추진 경험을 전수하는 것은



국의 신장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일본의 경우 신산업창조전략(2004년)에 따라 비즈니스 서비스를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7대 전략 중 하나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또 2000년 대비 2010년까지 시장규모 40%, 고용규모 20%까지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재 육성 강화, 산업 인프라 구축, 공공부문의 외부위탁추진 등을 통한 신 시장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2004년 이후 범부처 종합계획인 서비스산업발전 정책 및 행동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12개 업종을 선정(유통,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R&D, 금융, 정보서비스, 통신, 의료 등)하여 집중하고 있다.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ESCO

앞으로의 과제는 ESCO가 친환경 산업 그리고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특히 ESCO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기업 스스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고유의 솔루션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R&D 노력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신 고유가 시대의 도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미뤄 버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에너지절약 분야의 선두 주자는 ESCO이며, 이의 활성화가 곧 에너지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의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하고 민·관·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 나가야 할 때이다.

